

	4월 20일 화요일	보도자료				
실과	축산정책과	과장	박도환	팀장	김태원	 286-6520

전남도, 정부 농축산분야 연구개발(R&D) 공모사업, 국비 527억원 확보!

-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 기반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과학영농 선도에 앞장서 -

- **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업 연구개발(R&D) 신규 사업인 ‘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’과 ‘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’ 공모사업에 14개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527억 원의 연구비를 확보**하였다고 밝혔다.
 - 전남도 소재 대학, 기업체, 연구소 등이 각 과제별로 참여해 선정됨에 따라 14개 신규과제 수행에 **정부 지원 연구비가 5년간 527억 원이 투입되며, 올해는 1차 연도로 121억 원이 투입**된다.
 -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: 12개과제 국비 490억원(2021년 114억원)
 -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: 2개과제 국비 37억원(2021년 7억원)
- **김영록 도지사는 미래 산업에 대응한 연구개발기능 강화를 위해**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**연구바이오산업과를 신설** 하였고, **정무부지사가 중심이 되어 정부 연구개발(R&D)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농축산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.**
- **‘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’은 3개부·처(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 공동 주관으로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현장실증, 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·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12개 과제에 490억 원이 투입**된다.
 - 주요내용은 **원예분야(6개과제 276억 원)**
 - ▲ 스마트 온실용 지능형 농작업 로봇개발(82억원) ▲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육묘 표준화기술 개발·실증(71억원) ▲ 영상기반시설 과채류 정밀 생육·생체 특성 측정 및 진단기술개발(39억원) ▲ 고생산성 온실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기술개발(27억원) 등 이며,

- **축산분야(6개과제 214억 원)**

▲ 축산 생력화 로봇 개발(66억원) ▲ 축우 2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(44억원)
▲ 2세대 돼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(32억원) ▲ 축사 복합환경 지능형 동적제어
기술개발(27억원) 등이다.

□ **‘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’**은 축산분야 당면과제 해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,
미래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하는
사업으로 **5년간 2개 과제에 37억 원이 투입된다.**

- **주요내용(2개과제 37억 원)**은

▲ 오리축사 깔짚 관리용 자율주행 로봇개발(14억원) ▲ 가축 온실가스 발생 저감
기술개발(23억원)이다

□ **전남도는 연구과제 본격 착수를 위해** 사업에 참여하는 전남대 및 순천대, 전남
농업기술원, 기업체, 연구소 등과 **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의 협의회를
개최하여 지원방안 협의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**이다.

□ **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** “연구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**사전 준비한
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며**, 농축산업 분야 연구개발(R&D)사업 과제들이 연구
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며, “**앞으로도 사물인터넷(IoT),
인공지능(AI) 기반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개발(R&D) 사업에도
참여를 확대해 전남 농축산업이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는데
앞장서겠다**”고 말했다.